

인구학적 변인과 심리적 소외감이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로 인한 섭식행동동기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Demographical Variables and Alienation on Adolescent's Negative Emotion-Induced Eating Motivation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부 교수 민 하 영**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조 교수 이 윤 주

Dept. of Child, Catholic Univ. of DaeGu

Associate Professor : Min, Ha-Yeoung

Dept. of Education, Yeungnam Univ

Assistant Professor : Lee, Yoon Jo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demographical variables(gender and age) and alienation on adolescent's negative emotion-induced eating motivation. The subjects were 389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o lived in Keoungbok.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one-way ANOVA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using SPSS 12.1).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There was difference in adolescent's negative emotion-induced eating motivation according to gender, age, and level of alienation. Adolescent's negative emotion-induced eating motivation tended to be higher when adolescent were girl students, or high school students or in higher level of alienation.
- 2) Alienation was the stronger predictor of adolescent's negative emotion-induced eating motivation than gender and age.
- 3) There was difference in boy adolescent's negative emotion-induced eating motivation according to age and level of alienation. But there was difference in girl adolescent's negative emotion-induced eating motivation only according to level of alienation.
- 4) For boy, alienation was the stronger predictor of adolescent's negative emotion-induced eating motivation than age. But for girl alienation was only significant predictor of adolescent's negative emotion-induced eating motivation.

▲주요어(Key Words) :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로 인한 섭식행동동기(adolescent's negative emotion-induced eating motivation), 인구학적 변인(demographical variables such as gender and age), 심리적 소외감(alienation)

* 이 논문은 2008년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것을 확장한 것임. 자료수집에 도움주신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김경화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교신저자 : 민하영 (E-mail : hymin@cu.ac.kr)

I. 문제제기

세계보건기구(WHO)는 2006년 9월 '2005년 기준으로 전 세계 15세 이상 인구 중 최소 4억명 이상이 비만이며 세계 65억 인구 중 약 12억명에서 15억명 가량이 과체중 인구로 추산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1세기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는 비만은 조용한 암살자로 불리울만큼 만병의 근원으로 기능할 뿐 아니라 우울감 증진이나 자아감 상실 및 사회생활 적응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비만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모두를 위협하는 총체적 질병이라 할 수 있으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만은 소비한 칼로리에 비해 많은 양의 칼로리를 섭취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칼로리 소모를 높일 수 있는 운동 권장과 칼로리 섭취를 높일 수 있는 과도한 섭식 금지가 전형적인 비만 예방 방안으로 제안되고 있다. 과도한 섭식 금지가 비만 예방을 위한 전형적 방안인 점을 고려해 볼 때 과도한 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 탐색 연구는 사회적 관심사로 최근 부각되고 있는 비만 예방 노력에 긍정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폭식과 같은 과도한 섭식행동에 관한 연구는 비만 예방적 차원에서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과도한 섭식은 개인의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등의 개인적 요인(Gual et al., 2002; Van den Berg et al., 2002)과 부모-자녀 관계 등의 가정 환경적 요인(이정, 2007; 정영선, 2005; Attie & Brooks-Gunn, 1989; Dinsmore & Stormshak, 2003; Dominy et al., 2000)에 의해 영향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가운데 분노와 우울, 불안 등 부정적 정서와 같은 개인적 요인은 과도한 섭식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상선, 2007; 천숙희, 2007; Geliebter & Aversa, 2003; Heatherton & Baumeister, 1991; Kinder, 1991; Match & Simons, 2000). 섭식행동의 초기 연구에서는 폭식과 같은 과도한 섭식행동이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로 인해 유발한 것인지, 부정적 정서가 과도한 섭식행동을 유발한 것인지에 관해서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를 폭식과 같은 과도한 섭식행동의 선행요인으로 간주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Gual 등(2002)은 우울이나 낮은 자아존중감 등 개인적 요인을 과도한 섭식행동의 결과요인으로 다루기보다 선행요인으로 다루는 것이 중재 활동을 위해 보다 효과적이라고 제안하였다(김기남 · 김영희, 2004). 한편 정서적 섭식 모델에서도 정서가 선행하여 폭식을 유발한다고 전제하면서 부정적 정서를 줄이기 위한 도구로 섭식행동이 유발된다고 설명하고 있다(김혜은 · 박경, 2003).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과도한 섭식행동은 우울이나 분노, 불안 또는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정서에 의해 영향받는다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우울이나 분노,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보다 부정적 정서에 의한 섭식행동동기가 비만을 초래하는 폭식 행동을 보다 더 잘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배하영 · 이민규, 2004). 이는 부정적 정서에 의한 섭식행동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규명이 비만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에 보다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부정적 정서에 의한 섭식행동동기란 '우울이나 슬픔 등 부정적 정서 시 나타나는 음식 섭취 욕구'를 의미한다. 부정적 정서에 의한 섭식행동동기는 긍정적 정서에 의한 섭식행동동기보다 섭식행동을 더 많이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배하영 · 한덕웅 · 이민규, 2005). 부정적 정서 시 섭식행동동기가 높아지고 섭식행동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정서적으로 도구화된 섭식동기(emotionally instrumental eating) 시각'에서는 부정적 정서 상태를 줄이기 위한 도구적 방법으로 섭식행동이 유발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부정적 정서에 의한 섭식행동동기가 높을수록 폭식과 같은 과도한 섭식행동에 의한 비만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정적 정서에 의한 섭식행동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해봄으로써 청소년의 비만 예방을 위한 기초 정보를 얻는데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청소년기는 '질풍 노도'로 표현될만큼 감정 및 정서 변화가 급격한 시기다. 섭식행동이 부정적 정서와 관련되어 있다는 앞서의 선행연구를 고려해 볼 때 질풍노도와 같은 청소년의 불안정한 정서 특성은 과도한 섭식행동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섭식관련 지도나 관리가 청소년기에 보다 요구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정적 정서에 의한 섭식행동동기를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섭식행동과 관련된 연구는 여중생, 여고생(김영신 · 공성숙, 2004; 천숙희, 2007), 여대생(김갑숙 · 강효정, 2007; 김기남 · 김영희, 2004; 이상선, 2007) 등 10대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남성들 사이에서도 체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비만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Anderson & Bulik, 2004)되고 있을 뿐 아니라 남성의 섭식행동도 우울 및 분노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에 의해 영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Costanzo et al., 1999; Eliot, & Baker, 2001). 이는 여자의 섭식행동관련 특성만큼 남자의 섭식행동관련 특성도 규명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섭식행동 연구에서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남자를 여자와 함께 자료 조사하여 분석함으로써 섭식행동동기와 관련된 성별 특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편 연령에 따른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로 인한 섭식행동동기를 살펴봄으로써 섭식행동동기에 보다 많은 주의와 관리가 요구되는 청소년 시기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청소년이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 가운데 우울증은 13세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5세 이후 18세 사이에 우울증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Hankin et al., 1998)되고 있다. 또한 부모관계, 학업관계, 친구 관계 등과 관련된 일상적 스트레스는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권오숙·문성호, 2007)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와 함께 섭식행동동기가 부정적 정서와 연결되었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해 보면 우울이나 스트레스 등 부정적 정서 경험 가능성이 중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고등학생은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줄이기 위한 도구적 방법(Macht & Simons, 2000)으로 보다 높은 섭식행동동기를 보일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1318세대의 청소년의 섭식행동동기를 연령을 기준으로 1315세대인 중학생과 1618세대인 고등학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학교 급별의 학생을 의미하나 일반적으로 학교 급별은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되고 있기 때문에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연령의 인구학적 변인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로 인한 섭식행동동기를 학교 급별 학생인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구분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울이나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 정서가 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고려해 볼 때, 부정적 정서에 의한 섭식행동동기는 성별과 연령의 인구학적 변인 외에 심리적 소외감과 연결시켜 살펴볼 수 있다.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구조에 대한 개인의 불만족과 미성숙한 자아정체감의 결과(Calabrese, 1987)로 나타나는 심리적 소외감은 청소년의 공격성, 자살, 학교 이탈과 같은 사회적 부적응 뿐 아니라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 부적응의 강력한 예측 지표(이은숙, 2007; 이현림 등, 2004; Heaven & Bester, 2001)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심리적 소외감은 청소년기에 발달하는 대표적 부정적 정서이기 때문에 부정적 정서로 인한 섭식행동동기에 의미있는 변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부정적 정서로 인한 섭식행동동기를 부정적 정서와 연결시켜 살펴보는 것은 부정적 정서로 인한 섭식행동동기가 부정적 정서 시 나타나는 섭식행동동기 정도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 부정적 정서의 강도는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부정적 정서로 인한 섭식행동동기는 실망감을 느낄 때 음식이 먹고 싶어지는 정도에 관한 정보는 제시할 수 있지만, 소외감이 높으면 실망감을 느낄 때 더욱 먹고 싶어지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시할 수 없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 뿐 아니라 소외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 수준이 부정적 정서로 인한 섭식행동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부정적 정서로 인한 청소년의 섭식행동동기에 영향을 미칠 중재 프로그램 개발 시 우선 고려되어야 할 변인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청소년의 섭식행동동기에 미치는 성과 연령 그리고 심리적 소외감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선행연구에서는 여자는 남자에 비해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에 보다 취약(Ge & Conger, 2003)하며, 부정적 정서를 대처하는 전략에 있어서도 정서를 조절하는데 초점을 두는

정서 중심의 대처행동을 선호한다고 보고(Stone & Neale, 1984)하고 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부정적 정서로 인한 섭식행동동기에 민감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여자는 남자에 비해 부정적 정서에 보다 취약하기 때문에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도구화된 섭식동기(emotionally instrumental eating) 시각'에서처럼 부정적 정서 상태를 줄이기 위한 도구적 방법으로 섭식행동을 더 많이 유발할 수 있다. 이는 부정적 정서로 인한 여학생의 섭식행동동기가 남학생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섭식행동동기에 미치는 독립변인의 영향력에도 남녀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함의하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남녀 청소년을 구분하여 부정적 정서로 인한 섭식행동동기와 연령 및 심리적 소외감의 차이 및 독립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남녀에 따라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 <연구문제 1>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로 인한 섭식행동동기는 성별, 연령, 그리고 심리적 소외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 <연구문제 2>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로 인한 섭식행동동기에 대한 성별, 연령, 그리고 심리적 소외감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남녀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로 인한 섭식행동동기는 연령과 심리적 소외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남녀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로 인한 섭식행동동기에 대한 연령과 심리적 소외감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로 인한 섭식행동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규명함으로써 청소년의 비만 예방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 청소년은 모두 389명으로 남학생 189명(48.6%), 여학생 200명(51.4%), 중학생 199명(51.1%), 고등학생 190명(48.8%)이었다. 한편 189명 남학생 중 중학생은 103명(54.5), 고등학생은 86명(45.5%)이었으며, 200명 여학생 중 중학생은 96명(48%), 고등학생은 104명(52%)이었다.

2. 조사도구

1) 부정적 정서로 인한 섭식행동동기 척도

Arnow 등(1995) 그리고 Garner(1991)의 척도를 기초로 배하영과 이민규(2004)가 개발한 부정적 정서로 유발된 섭식동기 척도를 사용하여 섭식행동동기 척도를 구성하였다. '우울하거나 낙심하면 음식이 먹고 싶어진다.' '실망한 일이 생기면 음식이 먹고 싶어진다.' '외로울 때면 음식이 먹고 싶어진다' 등으로 이루어진 섭식행동동기는 '전혀 아니다(1점)' '정말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응답가능 범위는 9점에서 4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음식을 먹고 싶은 동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총 9문항으로 이루어진 이 척도의 문항간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95이며 평균은 16.18(7.40)으로 나타났다.

2) 심리적 소외감 척도

Seeman(1972, 1975)의 소외개념을 사용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강완숙과 유안진(2000)의 소외감 측정 척도 중 무력감, 무의미, 사회적 고립, 자기 유리에 관한 문항을 중고등학생에 맞게 보완하여 청소년 용 소외감 척도를 구성하였다. 자신의 행위를 개인적 혹은 사회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낮고 이와 같은 통제는 외부의 힘이나 운명에 맡겨져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1) 무력감 문항, 개인적인 일이나 사회적인 사건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그 결과 역시 예측할 수 없다고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는 2) 무의미 문항, 자신이 사회로부터 배척당하거나 타인으로부터 거부되고 있음을 인식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3) 사회적 고립 문항, 개인이 어떤 활동에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일이 자신에게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느끼며, 비록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나 자신이 하는 일에서 기쁨이나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4) 자기 고립 문항 등 총 40개로 이루어졌다. 10개씩 이루어진 4개 영역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거의 그렇지 않다(2점)', '자주 그러는 편이다(3점)', '늘 그러는 편이다(4점)'의 4점 리커트로 측정되었으며 응답가능 범위는 40점에서 160점으로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심리적 소외를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문항간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95이며 평균(표준편차)은 97.97(23.08)로 나타났다.

3. 조사 절차

대구경북 내 중고등학교의 청소년 602명을 연구대상으로 2007년 6월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 조사는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 응답요령을 설명받은 각 학교 담임 교사의 지도

하에 교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응답이 끝난 후 그 자리에서 수거하였다. 중고등학교에서 수거된 자료 중 가족구조가 청소년의 부적응(DeLeire & Kalil, 2002) 및 가족기능의 경험을 제한한다는 연구결과(진미정, 2008)와 가족기능이 청소년의 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Dinsmore & Stormshak, 2003) 등을 토대로, 가족구조적 측면에서 기능상 문제가 있는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을 제외하고 양친부모 가정 청소년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응답 자료 중 한 문항이라도 무응답된 자료는 분석 자료에서 모두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 분석에는 389부만이 사용되었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의 t검증, 일원변량 분석, Scheffe' 사후 검증 및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alpha < .05$ 에서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연구문제 1> 성별, 연령, 그리고 심리적 소외감에 따른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로 인한 섭식행동동기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로 인한 섭식행동동기가 성별, 연령, 그리고 심리적 소외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섭식행동동기는 <표 1>에서 나타나듯 성별과 연령, 심리적 소외감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t = -2.96, p < .01$),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t = -3.23, p < .01$) 그리고 소외감이 낮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F(2,386) = 7.15, p < .01$) 부정적 정서 상황에서 보다 높은 섭식행동동기를 나타냈다.

<연구문제 2>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로 인한 섭식행동동기에 대한 성별, 연령, 그리고 심리적 소외감의 상대적 영향력

청소년의 섭식행동동기에 대한 성별과 연령의 인구학적 변인과 심리적 소외감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성별과 연령, 심리적 소외감을 독립변인으로, 청소년의 섭식행동동기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시하기 전, 성별과 연령을 더미 변수 처리한 후 독립변인간 다중공선성과 잔차항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독립변인간 다중공선성을 나타내는 분산팽창요인(VIF) 지수가 10이하인 1.004-1.113 범위에 있었으며, 잔차항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더미 왓슨(D-W) 지수가 2에 근접한 1.93을 나타냈다. 이는 다중공선성의 위험성이 없어야 하며 잔차항간의 상관관계

<표 1>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로 인한 섭식행동동기의 성별, 연령과 심리적 소외감에 따른 평균차

변 인	변인 구분	사례수	섭식행동동기		t값/F값(df)	Scheffe'
			평균	SD		
성 별	남학생	189	15.05	6.79	-2.96**	
	여학생	200	17.25	7.79		
연 령	중학생	199	15.02	6.55	-3.23**	
	고등학생	190	17.41	8.02		
소외감	낮은 집단	118	14.23	6.88	7.15(2, 386)**	a
	중간 집단	153	16.47	6.81		b
	높은 집단	118	17.76	8.19		b

주) **p<.01

주) 연령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교 급별을 중심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으로 구분했으며, 심리적 소외감은 점수의 상위 30%를 기준으로 낮은, 중간, 높은 집단으로 구분함.

주) Scheffe' 검증에 의한 a,b 동일한 문자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함.

<표 2>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로 인한 섭식행동동기에 대한 성별, 연령과 심리적 소외감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n= 389)

단 계	독립변수	중속변수		섭식행동동기		F값(df)	R2(adjR ²)	△R ²
		상 수	B(SE)	β				
		9.28	1.55					
1단계	소외감	.06	.02	.17***		16.81*** (1,387)	.04(.04)	.04
2단계	성	2.01	.73	.14**		12.71*** (2,386)	.06(.06)	.02
3단계	연 령	1.57	.76	.11*		10.00*** (3,385)	.07(.07)	.01

주) 성별 더미변수: 남학생 0, 여학생 1,

연령 더미변수: 중학생 0 고등학생 1(연령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교 급별을 중심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으로 구분)

주) *p<.05, **p<.01, ***p<.001

가 높지 않아야 한다는 중다회귀분석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중다회귀분석의 충족된 조건을 기초로, 중다회귀분석 결과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로 인한 섭식행동동기에 미치는 독립변인의 상대적 설명력은 심리적 소외감(β=.17, p<.001), 성별(β=.14, p<.01), 연령(β=.11, p<.05) 순으로 나타났다.

(SD:8.78))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여중생과 여고생 모두는 남학생에 비해 높은 섭식행동동기를 나타냈다. 한편 남학생의 섭식행동동기(F(2,186)=3.61, p<.05)는 여학생의 섭식행동동기(F(2,197)=3.25, p<.05)처럼 심리적 소외감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연구문제 3> 연령과 심리적 소외감에 따른 남녀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로 인한 섭식행동동기

남녀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로 인한 섭식행동동기가 연령과 심리적 소외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남학생과 여학생을 각각 분리하였다. 그리고 부정적 정서로 인한 남학생 또는 여학생의 섭식행동동기가 연령과 심리적 소외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표 3>에서 보듯이 남학생의 경우 중학생과 고등학생간 섭식행동동기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고등학생(m=16.58(SD:6.95))은 중학생(m=13.78(SD:6.41))에 비해 높은 섭식행동동기를 나타냈다(t=-2.88, p<.01).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 중학생(m=16.34(SD:6.47))과 고등학생(m=18.09

<연구문제 4> 남녀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로 인한 섭식행동동기에 대한 연령과 심리적 소외감의 상대적 영향력

남자와 여자 청소년의 섭식행동동기에 대한 연령과 심리적 소외감의 상대적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해 남학생과 여학생의 섭식행동동기를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고, 연령과 심리적 소외감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간 다중공선성을 나타내는 분산팽창요인(VIF) 지수는 남자 1-1.06 범위 여자 1.0에 있었으며, 잔차항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더빈 왓슨(D-W) 지수는 남자 2.00, 여자 1.91을 나타냈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부정적 정서로 인한 섭식행동동기는 연령과 심리적 소외감에 의해 약 8% 정도 유의하게 설명되는 것으로

<표 3> 남자와 여자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로 인한 섭식행동동기의 연령 및 심리적 소외감에 따른 평균차

성 별	변 인	변인 구분	사례수	섭식행동		t값/F값(df)	Scheffe'
				평 균	SD		
남학생	연 령	중학생	103	13.78	6.41	-2.88**	
		고등학생	86	16.58	6.95		
여학생	연 령	중학생	94	16.34	6.47	-1.59	
		고등학생	104	18.09	8.78		
남학생	소외감	낮은 집단	57	13.26	6.80	3.61(2,186)*	a
		중간 집단	75	15.23	5.51		ab
		높은 집단	57	16.61	7.91		b
여학생	소외감	낮은 집단	59	15.29	7.17	3.25(2,197)*	a
		중간 집단	80	17.49	7.54		ab
		높은 집단	61	18.84	8.37		b

주) *p<.05, **p<.01, ***p<.001

<표 4> 남녀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로 인한 섭식행동동기에 대한 연령과 심리적 소외감의 단계적 중회귀분석 결과

성 별	단 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섭식행동동기		F값(df)	R ² (adjR ²)	△R2
			상 수	B(SE)	β				
남학생 (n=189)	1단계	연령	8.74	1.96			10.98*** (1,187)	.06(.05)	.05
		소외감	.07	.03	.20**				
		연령	2.16	.99	.16*	8.00*** (2,186)			
여학생 (n=200)	1단계	연령	11.69	2.30			6.18** (1,198)	.03(.03)	.03
		소외감	.07	.03	.19**				

주) 연령 더미변수: 중학생 0 고등학생 1(연령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교 급별을 중심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으로 구분)

주) *p<.05, **p<.01, ***p<.001

나타났으며 연령($\beta=.16, p<.05$)보다 심리적 소외감($\beta=.20, p<.01$)의 설명력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심리적 소외감에 의해서만 3% 정도 유의하게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비만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최근의 사회적 환경에서,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로 인한 섭식행동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규명은 청소년의 비만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나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대구경북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89명의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의 인구학적 변인 및 심리적 소외감과 부정적 정서로 인한 섭식행동동기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 및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로 인한 섭식행동동기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여자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로 인한 섭식행동동기는 남자 청소년의 섭식행동동기보다 높게 나

타났다.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부정적 정서 유발 시 섭식행동동기가 높은 것은 부정적 정서에 대처하는 성차(Stone & Neale, 1984)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여자는 남자에 비해 부정적 정서에 민감하며(Ge & Conger, 2003), 부정적 정서가 발생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중심의 해결책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한 정서적 고통을 완화하거나 해결하려하는 정서 중심의 해결책을 선호하는 여성의 대처행동 특성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민감성과 대처행동 특성을 '정서적으로 도구화된 섭식 동기 시각'과 함께 고려해 보면,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 부정적 정서 상태를 줄이기 위한 도구적 방법으로 섭식을 보다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부정적 정서 유발 시 부정적 정서의 원인을 직접 해결하기 보다, 부정적 정서 상태를 줄이기 위한 도구로 섭식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부정적 정서로 인한 섭식행동동기는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부정적 정서로 인한 고등학생의 섭식행동동기는 중학생의 섭식행동동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우울 및 스트레스 등 부정적

정서에 노출될 기회가 많을 뿐 아니라 경험되는 우울이나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권오숙·문성호, 2007; Hankin et al, 1998)와 연결시켜 설명해 볼 수 있다. 즉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해 보다 높은 섭식행동동기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심리적 소외감이 높은 집단이 보다 높은 섭식행동동기를 보인다고 규명한 <연구문제 1>의 결과를 통해서도 지지될 수 있다.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로 인한 섭식행동동기가 성별과 연령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난다고 지적한 이 연구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에게,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에게 부정적 정서 상황을 재인식하거나 사건의 긍정적 의미를 재평가하는 등의 긍정적 정서조절대처(Garnefski et al., 2001) 능력을 배양하거나 문제 중심의 대처행동전략(Folkman & Lazarus, 1988)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집중 교육한다면 여학생과 고등학생의 부정적 정서로 인한 섭식행동동기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로 인한 섭식행동동기는 심리적 소외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심리적 소외감을 높이 지각하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부정적 정서 시, 섭식행동동기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심리적 소외감 또한 우울이나 분노 등과 마찬가지로 섭식행동동기를 유발하는 의미있는 부정적 정서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보다 높은 부정적 정서에서 보다 높은 섭식행동동기가 나타남을 보여줌으로써 부정적 정서로 인한 섭식행동동기가 부정적 정서의 유무뿐 아니라 수준에 의해서도 영향받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부정적 정서 시 청소년의 섭식행동동기를 높이는 것은 인구학적 변인인 성별과 연령보다 심리적 소외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부정적 정서 시 섭식행동동기가 높게 나타났지만 부정적 정서 시 섭식행동동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청소년의 심리적 소외감을 중재하는 프로그램이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로 인한 섭식행동동기를 남녀로 나누어 접근했을 때, 남자 청소년의 섭식행동동기는 연령과 심리적 소외감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심리적 소외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섭식행동동기가 높았다. 이는 남성도 우울과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 상태에서 섭식행동이 높게 나타난다고 지적한 선행연구(Costanzo et al., 1999)와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여자 청소년의 경우 남자 청소년과 같이 부정적 정서 시 유발되는 섭식행동동기는 심리적 소외감에 의해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불안, 우울, 스트레스가 높을 때 여성의 섭식행동이 나타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자 청소년의 경우 남자 청소년과 달리 부정적 정서 시 유발되는 섭식행동동기는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연구문제 1>의 결과에서처럼 여중생과 여고생의 섭식행동동기는 중고교 남학생에 비해 높았으나, 여중생과 여고생간에는 부정적 정서로 인한 섭식행동동기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여자 청소년의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부정적 정서 시 보다 섭식행동욕구가 큼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정서에서 이루어지는 섭식행동동기를 낮추기 위한 정서조절 및 정서관리 기술이나 부정적 정서 상황을 재인식하거나 사건의 긍정적 의미를 재평가하는 등의 긍정적 정서조절대처(Garnefski et al, 2001) 교육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보다 빨리 시작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넷째, 부정적 정서 시 유발되는 남자 청소년의 섭식행동동기는 연령과 심리적 소외감에 의해 모두 유의하게 설명되나 심리적 소외감의 설명력이 연령의 설명력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자 청소년의 섭식행동동기는 심리적 소외감에 의해서만 유의하게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연령에 의한 설명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부정적 정서 유발 시 나타나는 섭식행동동기 수준이 중고등학생이라는 학년 즉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유사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부정적 정서로 인한 섭식행동동기에 미치는 독립변인의 영향이 남녀 청소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남자 청소년의 섭식행동동기도 여자 청소년의 섭식행동동기처럼 관심있게 다루어야 할 부분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정적 정서 시 유발되는 섭식행동동기에 관한 교육 내용이나 프로그램 실시 시기 등에 있어 성별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심리적 소외감을 완화하거나 극복하기 위한 방안 모색은 남녀 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부분이나, 부정적 정서 유발 시 나타나는 섭식행동동기의 중재 프로그램은 남녀 학생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과 마찬가지로 부정적 정서 유발 시 섭식행동동기를 경험하지만 여학생에 비해 그 정도는 약할 뿐 아니라 남자 중학생의 경우 섭식행동동기는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학생은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과 큰 차이 없이 섭식행동동기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부정적 정서 시 유발되는 섭식행동동기에 관련된 중재 프로그램이 여학생의 경우, 조기에 제공되면서 비중있게 제시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부정적 정서로 인한 높은 섭식행동동기가 반드시 비만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정적 정서로 인한 섭식행동동기가 폭식에 대한 설명력과 유관하다는 점(배하영·이민규, 2004)을 고려해 볼 때 부정적 정서 경험 시, 섭식행동동기가 높다는 것은 비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부정적 정서로 인한 섭식행동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고자 한 이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비만 관련 문제 및

건강한 섭식행동을 증대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를 현장에서 보다 실용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섭식행동동기와 섭식행동간의 관계성 또는 신체적, 심리적 비만 및 섭식장애간의 관계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 및 섭식행동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의 추가 탐색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표 2>의 결과에서 나타나듯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로 인한 섭식행동동기에 대한 인구학적 변인과 심리적 소외감의 설명력은 약 7%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과 연령의 인구학적 변인과 심리적 소외감으로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로 인한 섭식행동동기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여자 청소년의 경우 <표 4>의 결과에서 나타나듯 소외감에 의해서만 약 3%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는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청소년 특히 여자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로 인한 섭식행동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 탐색이 추후 연구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외 이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로 인한 섭식행동동기의 평균이 5점 리커트의 9개 문항에서 16.18(7.40)을 나타냈다. 이는 부정적 정서 경험 시 섭식행동에 대한 동기가 상당히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부정적 정서 경험 시 섭식행동동기가 높은 집단의 특성을 명확히 규명하는데 충분치 않은 자료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판별분석 등을 토대로 부정적 정서 경험 시 섭식행동동기가 높게 나타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간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로 인한 섭식행동동기에 관한 연구가 일천한 상황에서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독립변인을 탐색하려했다는 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완숙·유안진(2000). 지각된 부/모 가치, 부/모-자녀간 정서적 친밀도 및 부/모의 과잉통제와 대학생의 소외감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8(8), 69-84.
- 권오숙·문성호(2007). 청소년의 스트레스 및 자기통제력과 충동구매 경향성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4(1), 31-46.
- 김기남·김영희(2004). 대학생의 섭식장애 행동에 관련된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2), 83-97.
- 김갑숙·강연정(2007). 여자청소년의 신체관련변인, 자존감, 내적통제력이 섭식장애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3), 77-87.
- 김영신·공성숙(2004). 여자 청소년의 체중조절행위, 섭식장애 증상, 우울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3(3), 304-314.
- 김혜은·박경(2003). 여성의 우울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3), 511-524.
- 배하영·이민규(2004). 부정적 정서로 유발된 섭식동기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1), 187-201.
- 배하영·한덕용·이민규(2005). 정서, 섭식억제, 체형 및 체중 관련 사적자기주의에 따른 섭식동기 및 섭식행동.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2), 145-165.
- 양병화(2002). 다변량 자료분석의 이해와 활용. 서울: 학지사
- 이상선(2007). 포식행동의 이중-경로 모형에 관한 검증: 부정 정서 경험 측정과 부정 정서 조절 기대 구분의 필요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4), 883-902.
- 이은숙(2007). 남·여 청소년의 소외감, 우울과 자살생각에 관한 예측모형. **대한간호학회지**, 27(4), 576-585.
- 이정(2007). 청소년기 여학생들의 섭식장애행동과 가족간 의사소통에 관한 4년 종단연구: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통하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3), 467-492.
- 이현림·장미자·김순미(2004). 교우관계개선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소외감과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 연구**, 11(3), 181-198.
- 정영선(2005). 청소년의 섭식장애와 가족기능과의 관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85-706.
- 진미정(2008). 가족구조에 따른 아동의 생활시간 비교. **가족과 문화**, 20(3), 187-211.
- 천숙희(2007). 청소년기 여성의 섭식행동과 우울, 분노, 분노표현 및 개인적 특성[BAS/BIS]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3(4), 310-319.
- Arnold, B., Kenardy, J., & Agras, W. S.(1995). The emotional eating scale: The development of a measure to assess coping with negative affect by ea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8, 79-90.
- Attie, I., & Brooks-Gunn, J.(1989). Development of eating problems in adolescent girls: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25(1), 70-79.
- Anderson, C. B. & Bulik, C. M.(2004). Gender differences in compensatory behaviors, weight and shape salience, and drive for thinness. *Eating Behaviors*, 5, 1-11.
- Calabrese, R. L.(1987) Adolescence: A growth period conducive to alienation. *Adolescence*, 22, 929-938.
- Costanzo, P. R. Mustante, G. J., Friedman, K. E., Kern, L. S. & Tomlinson, K.(1999). The gender specificity of emotional, situational, and behavioral indicators of binge eating in a diet-seeking obese popul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6(2), 205-210.
- DeLeire, T. & Kalil, A.(2002). Good things come in threes: Single-parent multigenerational family structure and adolescent adjustment. *Demography*, 39(2), 393-413.
- Dinsmore, B. D., & Stormshak, E. A.(2003). Family func-

- tioning and eating attitudes and behaviors in at-risk early adolescent girls: The mediating role of intra-personal competencies. *Current Psychology: Developmental, Learning, Personality, Social*, 22(2), 100-116.
- Dominy, N. L., Johnson, W. B., & Koch, C.(2000). Perception of parental acceptance in women with binge eating disorder. *The Journal of Psychology*, 134(1), 23-36.
- Eliot, A. O., & Baker, C. W.(2001). Eating disordered adolescent males. *Adolescence*, 36(143), 535-544.
- Folkman, S. & Lazarus, R. S.(1988). Coping as a mediator of emo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466-475.
- Garnefski, N., Kraaij, V., & Spinhoven, Ph.(2001).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dep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 1311-1327.
- Garner, D. M.(1991). *Eating disorder inventory 2: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Geliebter, A. & Aversa, A.(2003). Emotional Eating in overweight, normal weight, and underweight individuals. *Eating Behaviors*, 3, 341-347.
- Ge, X., & Conger, R. D.(2003). Pubertal transition, stressful life events, and the emergence of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Development Psychology*, 37, 1-20.
- Gual, P., Perez-Gaspar, M., Martinez-Gonzales, M. A., Lahortiga, F., de Irala-Estevez, J., & Cervera-Enguix, S.(2002). Self-esteem, personality, and eating disorders: Baseline assessment of a prospective population-based cohort.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1(3), 261-273.
- Hankin, B. L., Abramson, L. Y., Moffitt, T. E., McGee, R., Silva, P. A., & Angell, K. E.(1998). Development of depression from preadolescent to young adulthood: Emerging gender differences in a 10 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7, 128-141.
- Heatherton, T. F., & Baumeister, R. F.(1991). Binge eating as escape from self-awareness. *Psychology Bulletin*, 110(1), 86-108.
- Heaven, P. C. L., & Bester, C. L.(2001). Alienation and its psychological correlat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6(5), 593-598.
- Kinder, B. N.(1991). Eating disorder(anorexia and bulimia nervosa). In Herson & S.M. Turner(2nd Eds.), *Adult Psychopathology and diagnosis*(pp. 253-280). John Wiley & Sons.
- Leichner, P. Y. & Gertler, A.(1988). Prevalence and incidence studies of anorexia nervosa. En B. J. Blinder (Ed.). *The eating disorders*. N.Y.: PMA Publishing Corp.
- Matcht, M. & Simons, G.(2000). Emotions and eating in every life. *Appetite*, 35(1), 65-71.
- Sankey, M., & Huon, G. F.(1999). Investigating the role of alienation in a multicomponent model of juvenile delinquency. *Journal of Adolescence*, 22, 95-107.
- Seeman, M.(1972). Alienation and engagement. In A. Campbell & P. Converse(Eds.). *The human meaning of social change*. N.Y.: Russel Sage Basic Book.
- Seeman, M.(1975). Alienation studies. In A Inkeles, J. Coleman, & N. Smelser(Eds.). *Annual review of sociology*. Palo Alto, CA: Annual Review.
- Stone, A. A., & Neale, J. M.(1984). New measure of daily coping: Development and preliminary resul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892-906.
- Van den Berg, P., Wertheim, E. H., Thompson, J. K., & Paxton, S.(2002). Development of body image, eating disturbance, and general psychological functioning in adolescent females: A replication using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in an Australian sampl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2, 46-51.

접수일 : 2008년 11월 17일

심사일 : 2008년 12월 02일

심사완료일 : 2009년 01월 29일